

하늘 높이 들어 올려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바쳤네.

이렇게 두 아이의 초창기 유년시절은 더 화창한 날을 알리는 맑은 새벽처럼 지나갔다네. 아이들은 벌써부터 모든 집안일을 두 어머니와 나눠서 하고 있었지. 수탉 울음소리가 새로이 먼동이 터 오는 때를 알려주자마자 비르지니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운 샘에 가서 물을 길었고, 이내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준비했네. 이후 머지않아 태양이 분지를 둘러싼 바위산 봉우리를 금빛으로 물들일 때면, 마르그리트와 그 아들은 라 투르 부인네 집을 찾았고,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아침 식사를 했어. 두 가족은 종종 문 앞에 있는 풀밭에 앉아, 바나나나 무없이 만들어주는 둥근 차양 아래 식사를 했는데, 이 바나나나무는 따로 조리할 필요도 없는 영양가 풍부한 열매를 양식으로 제공해주고, 뿐만 아니라 식탁보로 쓰기 좋은 넓적하고 길고 매끈한 잎까지 내주었네. 건강에 좋은 음식이 풍부해 두 청춘의 육체는 빠르게 발달했고, 천혜 자연의 교육은 아이들의 얼굴에 영혼의 순수함과 만족감을 그려 넣어주었네. 비르지니는 겨우 열두 살이었지만, 몸매는 벌써 반쯤은 성숙한 여인 그 이상이었지. 풍성한 금발이 목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고, 파란 눈과 신흥색 입술은 싱그러운 얼굴 위에서 더없이 부드러운 빛으로 반짝였어. 비르지니가 말할 때마다 늘 그 눈과 입술이 함께 미소를 머금었